

“정권교체 1년, 비정규직 삶 바뀐 게 없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결의대회... “재벌 갑질 철폐, 불법파견 현행법 재벌 총수 구속하라”

금속노조가 6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재벌총수 구속, 4대 갑질 철폐,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의 구속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전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사죄, 정규직 전환 ▲불공정 거래금지 적정 단가 보장 ▲납품사, 비정규직 노조 탄압 엄중 처벌 ▲불법경영세 습 금지를 재벌 적폐 해소를 위한 4대 요구로 정하고 문재인 정부에 노조의 요구를 전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재벌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4대 갑질을 끊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7월과 8월에 엉망이 된 노동법 개정 투쟁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6월 25일 금속노조 지회장과 기업지부 지회장, 위원회 의장과 사업부 대표들이 모인다. 7월 12일 1박 2일 파업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17만이 흔들림 없이 싸울 수 있도록 결의를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배제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찬진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부장은 “비정규직 대상 정규직 특별채용에서 여성 노동자가 배제당하고 있다. 1,500명이 정규직 됐는데 그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라며 “불법파견에 이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범죤다. 현장에서 성차별과 강제 전환배치 등 인권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을 배제하는 기아차의 행태에 더는 참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을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후, 결의대회를 계속 벌였다.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동차판매 연대지회, 이사회사내하청지회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투쟁 상황을 전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성규 현대차이사회사내하청지회장은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 있다. 정부는 처벌과 수사하지 않고 재벌들은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잘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대차이사회사내하청지회 간부들은 이날 대회를 마치고 ‘비정규직 철폐’를 피로 쓰는 결의의식을 치렀다.

조합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쓰러지는 비정규직의 삶을 표현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대회 참가자 조합원 모두가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누웠다. 조합원들은 5분 동안 도로에 누운 채 정규직화 약속을 저버린 문재인 정권과 불공정한 사회의 원인인 재벌을 규탄했다.

이영주 전 총연맹 사무총장 노동자 품으로

14일 서울지법 배심원단 집행유예 결정... “민주노총과 노조 할 권리 위해 헌신 투쟁하겠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끈 혐의로 구속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6월 14일 집행유예 형 집행 중지로 출소했다. 앞서 한상균 전 위원장은 2년 6개월간(894일)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지난 5월 21일 화성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은 6월 11일과 12일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 원, 벌금형 선고의 유예를 결정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출소 환영식에서 “절박한 첫 승리를 만들어낸 민주노총 모든

동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6개월이었다. 이제 민주노총이 두 번째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다”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를 보장하는 세상,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싸우겠다”라고 밝혔다.